

3장. Rolf Reichardt, For a Socio-Historical Semantics as a Middle Course between Lexicometry and Conceptual History

출처: part III of the Introduction to Rolf Reichardt and Eberhard Schmitt, eds. *Handbuch politisch-sozialer Grundbegriffe in Frankreich, 1680-1820*(Munich: Oldenbourg, 1985)

- 저자는 lexicometry(어휘측정법)와 담론분석, 코젤렉의 개념사 모두를 비판하면서 지식사회학에 근거한 자신의 사회역사미론을 주된 이론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를 위해 프랑스 혁명 전후 프랑스 내 정치, 사회, 문화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하고 향후 연구의 방법론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
- 어휘측정법은 주된 개념들이 각각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어휘의 수, 다른 어휘와의 공동 출현(co-occurrences)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가장 기초적인 연구 방법임.
  - 그러나 이는 개인적이고 공시적이며, 매우 제한된 역사적 변화 속에서 어휘를 연구하는 한계를 가짐. 또한 다른 저자들이 사용하는 어휘들과의 비교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어휘의 출현 숫자를 측정하기는 하지만 어휘의 의미가 발생하는 해석과 논의를 배제하고, 초개인적 체계의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문제.
- 담론분석은 하나의 일관된 방법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총칭
  - 감추어진 레토릭의 전략을 파헤치고 특정 맥락의 이념적 요소와 무의식적 배경을 보이는 방법.
  - 담론분석은 텍스트의 내적 구조와 작동에 집중함으로써 새로운 맥락에서 변화되는 개념들의 의미 변화를 추적하지 못함.
- 코젤렉의 담론분석은 많은 장점을 가지지만 문제도 있음.
  - 복수로 쓰이던 단어가 단수의 일반명사화 -> 지식인에 의해서만 쓰이던 개념이 일반화 -> 기본 표현이 점차 논쟁의 무기가 되면서 의미가 다의적으로 변화 -> 미래의 예측과 목적의 함의를 소유 -> 미래 지향적 운동 개념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기법
  - 그러나 너무 긴 시간을 다루면서 기본 텍스트 문헌에 대한 선택의 오류를 범하게 됨. 아리스토텔레스, 마르크스 등 기본 문헌에 의지하게 되면서 정치어휘의 대표성

의 문제가 제기됨. 역사, 정치 상황을 추적할 때, 단순히 어휘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증문서 등 사회에 통용된 자료 등을 더 추적해야 함.

○ 저자는 슈츠, 버거/루크만 등의 지식사회학에 기대어 사회역사의미론을 주장함.

- 이론적으로 사회, 역사적 현실 분석에서 언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어론에서 사회, 역사분석으로 나가야 한다는 설정.
- 즉, 언어는 개인의 어휘가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으로 의미규정이 되는 사회적 현상이며, 공통의 축적된 경험을 공유하는 매개체라는 가정임. 개인들의 경험이 어떻게 social knowledge가 되는가, 그리하여 개인의 경험과 특정 맥락이 어떻게 탈개인화(depersionalize)되는가를 밝혀야 함.
- Hans Ulrich Gumbrecht는 type의 지식사회학 개념을 사용함. “전형”으로 번역될 수 있을 듯 함. 사회적 지식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언어 공동체에서 인정되고 복잡화된 역사적 개념임. 위기상황에서 만들어져서 새로운 의미를 띠기도 함. 시간이 지나면서 problem-oriented되고 역사성을 지니게 됨. 개념의 의미획득과정, 변천과정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프랑스 혁명 전 바스티유 감옥은 독재의 대명사로 인정되었지만, 독재의 성격이 변화되는데 따라 개념의 함의도 변하고 있음을 미처 인식하지 못함.
- 전형은 결국 key component of the psychological and cultural infrastructure of a time period 임. 태도와 정신을 이끌고 의사소통과 집단행동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가치의 기본을 만들어내는 역할. 이는 정교하고, 문제지향적인 전형으로 추상적이고, 기본적인 용어들임.
- 이러한 점에서 소쉬르의 langue와 parole의 구분도 적절치 않음. 용법에 따라 개별 단어들이 다른 의미를 획득하면서 근저의 언어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 책의 서론으로 이후는 책 내용에 대한 설명

- 이 책은 프랑스 혁명 전후 프랑스의 주요 정치, 사회, 문화 개념이 어떻게 의미변천을 겪고, 사회적 지식으로 자리잡았는지를 추적함.
- 저자들은 주로 상층계급, 지식계급이 사용했던 주요 개념 500개 정도를 골라서 연구. 150개의 논문. 지식사회학적 개념연구는 구조적 속성을 가져야 하며, 개별 단어 계산과 같은 방법을 극복해야 함.
- 시기는 1680년부터 1820년으로 잡고, 세분하여 1680-1715/30, 1730-1820/30으로 설정. 앞 시기는 대중적 소통이 급속하게 팽창한 시기이고, 뒷 시기는 혁명 이후 보수화되는 시기임.
- 1760년에 출간된 사회, 정치 용어 사전에서 강조된 단어들을 골라 연구의 기초로 삼음.

- 앞 시기는 지식인들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정보의 소통이 급격하게 증가함. 아카데미, 살롱, 직업단체 등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소통기제가 마련됨. 정부의 하달식 소통이 아니라 일간 신문, 팜플렛 등의 출간물이 급속도로 확장되어 일반 서민, 하층계급까지 정치소통이 폭발함. 1715년까지 서서히 증가했던 출판물들이 1720-1760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는 양태. 이후 1760-1780년에 접어들면서 사회의 discursive fabric이 더욱 민주화 되고 질적, 양적으로 성장함. 또한 다양화, 극화되는 양상도 같이 보임.
- 이후 1789혁명 이후 1794년까지 담론구조는 폭발양상을 보이면서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 일간신문이 활성화되고 자코뱅 뿐 아니라 상퀼로트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다양한 직업군에 확장됨. mass communication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출범함과 동시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parliamentary communications system도 활성화됨. 점점 더 많은 지역들이 대의제적 의사소통구조를 갖추고 전국적으로 확대됨.
- 그러나 이후 1820년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시기에 나폴레옹 제국을 겪으면서 의회의 힘이 위축되고 다양한 계층의 의사소통도 축소. 그러나 혁명전으로 돌아오는 정도는 아니고 집합의견은 여전히 존재. 지식계층의 계몽적, 민주적 역할은 축소.
- 결국 언어와 개념은 담론체계, 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집합적 의사소통, 사건의 토론과 해석, 특정 시기 사회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한 반응 등을 이끌어가는 기제.
- 개별적 언술행위는 의사소통의 환경을 반드시 고려해야 의미가 해석되고 특정한 환경의 연속에 초점을 맞추어야 사회역사적 의미론이 성립되는 것.

○ 방법론: 95쪽 표에 요약.

